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61> 구룡토수(九龍吐水)

천지와 백록담은 한반도 전체를 가리킬 때 흔히 사용하는 상투적 표현이다. 중국에서도 천하를 가리키는 말로 강호(江湖) 내지는 사해(四海)라고 하는 걸로 봐서 물은 또다른 영토를 의미하는 말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어쩌다가 합토식(合土式)하는 장면을 만나게 되는데 그 자리에 참석한 모두를 비장하게 만들기도 한다.

합수식(合水式)도 마찬가지다. 백두산 물과 한라산 물을 합하는 의식은 '남북이 하나'임을 동참자에게 주시시킬 수 있는 상징적인 의례이기도 하다. 체계적인 입구에 팔석담(八石潭)이라는 표시가 붙어있다. 조선팔도에서 가지고 온 돌들을 바다에 깔아 현대식 조형미를 더하고서 동서남북 모두가 물에 섞이듯 화합하길 기원하는 마음의 또 다른 반영이라고 하겠다.

싯달타 태자가 룬비니동산 무우수



지금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왕위를 관정위(灌頂位)라고도 불렀다.

그 관정위는 법왕에게도 해당된다. 깨달음을 얻어 법왕의 위치에 오른 부처님은 '천하를 진리라는 법으로' 다스리는 전통 성왕이라고 불렀던 것도 마찬가지이다.

종교적 관정은 정치적 관정과 그 의미를 달리한다. 백 명의 외부에 있는 적보다도 나라고 하는 단 하나의 내부 적을 무찌르기가 더 어렵다.

천하를 다스리는 것 못지않게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를 주름잡고 호령하던 정복자들도 교만에 빠져 자기를 다스리는 일에 실패하면 그 말로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래서 자기를 이겨내는 마음 다스리가 중요한 것이다.

약산유엄 (745~828) 선사 문하에

천하 다스리는 것 못잡게 마음 다스림 어려워 관육의식은 몸과 마음 함께 깨끗이 씻는 것

나무 밑에서 탄생하자마자 제석천왕과 사천왕들이 모두 와서 예를 올리고, 하늘에서 아홉마리의 용이 날아와 모여들어 입으로 물을 뿜어 태자의 몸을 씻었다는 일화에서 나온 말이 구룡토수(九龍吐水)다.

'구룡토수'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구룡이 가지고 온 물은 인도 전역의 강에서 떠온 것일 것이다. 카필라라는 소국의 왕자로 태어났지만 인도전역을 통일시키는 대업을 달성해달라는 선왕이 가진 기대의 또다른 표출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왕자가 왕위에 오를 때도 관육식(灌頂式)을 했다. 즉 왕자의 신부에서 왕으로 태어나는 또 다른 탄생을 알리는 의식이었던 것이다. 이는 곧 그 대로 물을 머리에 부어준다. 그 물은 예사물이 아니었을 것이다.

자기 나라를 말할 것도 없고 인근 나라의 물까지도 비밀리에 가지고 와서 섞었을 지도 모르겠다. 영토에 대한 욕심은 예나

서 준포남(準布納)스님이 의식을 담당하는 노전소임을 보고 있었다. 마침 초과일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이마에 물을 붓는 관육식을 올리고 있었다. 그러자 대부 약산 선사가 불렀다.

"그대는 '이것'만 목욕시킬 뿐이구나. '저것'도 목욕시킬 수 있겠느냐?"

이에 준포남이 바로 대꾸했다.

"그렇다면 '저것'을 가지고 와 보십시오."

초과일날 관육의식을 치루면서 목욕의 본래의미를 서로 묻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이것'은 목욕시키는 탄생불상을 의미하며 '저것'은 모양없는 법신을 말한다. 불상은 형체가 있어서 씻을 수 있지만 법신은 형상이 없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씻을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진짜 목욕이란 관육의식을 하면서 나의 마음까지도 함께 씻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고통 드러내야 자유로워 집니다”

‘에니어그램 활용 고집멸도 명상상담’ 현장



‘에니어그램 활용 고집멸도 명상상담’ 연수에 참가한 출·제기자 12명이 명상요가 실습을 하고 있다.

“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떠나봅시다. 그간 불편했던 경험을 털어놓으세요.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야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감추면 고통수록 괴로움은 더 커집니다. 자! 자신에게 의미 있는 고통을 말해보십시오.”

나지막이 흐르는 목소리가 연수생의 마음을 파고든다. ‘고통 나누기’, 고집멸도(苦集滅道) 명상상담이 진행된다. 개인마다 가지는 집착의 성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가슴에 담아 뒀던 이야기들이 하나씩 풀어지면서 명상상담의 필요는 높아진다.

“에니어그램은 본래 동양수행법”

4월 29일 오후 7시, ‘에니어그램 활용 고집멸도 명상상담’ 연수회가 열린 서울 약수동 목우선원.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부터 3일간 정기적으로 연수회를 지도하는 인경 스님이 자기 고통 탐색과 경험 나누기에서 12명 연수생 12명을 상대로 상담을 했다.

‘에니어그램’과 ‘고집멸도’.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서양 성격이론과 불교의 만남이 어떤 자기변화를 이끌어낼까? 연수회 입장에 앞서 이들 관계에 대한 인경 스님의 설명은 이랬다.

“에니어그램이 본래 수행프로그램이란 것을 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철저히 동양에서 수행자들에게 의해

개발된 수행법입니다. 즉 환경, 인간관계 등에서 자신도 모르게 만들어진 일정한 패턴의 습관화된 행동과 성격을 자각하게 하는 프로그램인 것이죠. 불교적으로 말하면 바로 업의 인식입니다. 때문에 그 업의 이해가 곧 성격의 이해가 되는 것이고, 업을 고친다함은 개인마다 갖은 본성이 불성에 도달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탈출회합’입니다.”

에니어그램은 스스로에게 성격을 진단케 하고, 사성제와 명상상담 등은 치유의 기능을 한다는 의미다. 행법은 에니어그램을 방편으로 하고, 수행원리는 초기불교 사성제를 기초한 ‘알아차림’에 있다.

자신에게 의미있는 고통 드러내기

이튿날 오후 1시, ‘고통 원인 탐색시간’이 되자 집단상담이 진행된다. 각자가 드러낸 아픈 경험의 성격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표출해내기 위해서 갖는 시간이다.

군대시절 애인에게 3번씩이나 배신당했던 사연, 어렸을 때 부모가 싸울 때면 의자 밑으로 숨었던 이야기 등 지극히 개인적인 삶의 속살까지도 제한없이 오간다. 일 상 속에 겪은 고통의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된다.

집단 상담이 마무리 되자,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을 찾

는 시간이 진행된다. 연수생들은 각자가 지닌 고통과 그 발생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인경 스님이 정리한 ‘명상상담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검사지’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검사지는 감정형, 사고형, 의지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됐고, 각 유형별로 37가지 세부 유형에 12개 질문항목이 담겨있다.

나는 어떤 성격유형에 속할까?

“평화지향적” 유형 9번에 가깝게 결과가 나온 남성 민간(동국대 선학과 2년)은 연신 신기한 듯 검사항목을 보고 또 본다.

이후 연수회는 명상요가 실습, 호흡명상, 인경 스님의 ‘고집멸도’ 강의로 이어진다.

앞서 시간이 개인마다 가지는 집착과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고(苦)의 자각’, 성격에서 발생한 집착의 내적인 동기로서 원인을 이해하는 ‘집(集)의 파악’의 단계였다면, 이제부터는 일상 속에서 성격패턴을 인식하고 벗어나도록 돕는 ‘멸(滅)의 확산’과 개인 성격에 상응하는 명상법을 개발해 수행하도록 하는 ‘도(道)의 안내’의 순서다.

“이 연수는 잠재된 애착, 번뇌, 욕망 등의 씨앗을 스스로 드러내게 하는데 목표가 있어요. 에니어그램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습관화·행동화된 성격 패턴을 읽어냈으니, 이제는 치유법을 알아야겠지요? 그 방법이 바로 사성제와 명상, 호흡관찰입니다. 이것들은 마음의 본질인 ‘알아차림’을 강하게 해요. 명상과 상담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행동의 변화도 야기하기 때문이죠. 불교에서 자기변화의 밑천을 마련하는 셈이지요.”

“나에 대한 이해 깊어졌어요”

연수회가 끝나고 참가자들의 소감을 물었다. 중앙승가대 확인 보균 스님은 “에니어그램 명상상담 연수를 나를 이해하고 맨몸으로 진리를 찾아 나선 수행 길에서 만난 훌륭한 도반이 됐다”며 “이 연수회를 통해 이야기가 있는 또 하나의 스승을 만나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스스로를 구하려는 경계에서 벗어나 자신을 좀 더 넉넉한 눈으로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진다라양(동국대 선학과 1년)도 “억지로 파묻어둔 나의 아픔을 치료하는 계기가 됐을 뿐만 아니라, 고집멸도에 맞게 나를 찾는 과정에서 내면적인 성격을 정확히 알게 돼 객관적인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02)2236-5306

글·사진=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육조단경·간화선 입문 강좌

조계종 중흥회, 5월 16·17일 개강

재가불자들을 위한 간화선 공부 마당이 펼쳐진다. 선 수행의 지침서인 <육조단경>을 배우고, 재가자의 눈높이에 맞게 간화선 수행의 진수도 맛보게 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는 하안거를 맞아 각 회사 태백선원 선덕 고우 스님을 초청해 ‘돈황본 육조

단경 대강좌’를 1년간 매달 한 차례 여는 한편, ‘제1기 간화선 입문 프로그램’을 매주 한번씩 진행한다.

강좌는 5월 16일부터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오후 7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2시간 강의와 30분 문답으로 이뤄진다.

또 간화선 입문 프로그램은 5월 17일부터 매주 수요일 조계사에서 주간반(오후 2시 30분)과 직장인반(오후 7시)으로 나눠 진행되며, 조계종 포교연구실장 진명, 신도국장 원철 스님 등이 지도법사로 나선다. (02)733-7277.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밤은 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선은 본래는 인내 자로 보냅니다.
아바타 마스터 김희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명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021396-2736
http://www.avatarcntr.com E-mail: heegyun@avatar21.com

바로보인의 책들
대한 문화재단 서사시각역사 / 조가사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과 대한 문재현 선사님 업적의 무명을 일깨우는 통쾌한 선서(禪語)!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바로보인 부문관
바로보인 벽암록
바로보인 천부경
바로보인 금강경
바로보인 신심명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바로보인 중도가
바로보인 반야심경 영원한현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0권 중 2권까지)
바로보인 선문염송 (30권 중 7권까지)
새월을 폭재로 세상을 폭삼아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찻는 희다

<바로보인 선가귀감 출간!!!>

선가귀감은 깨닫고 뒤아가는 비밀이
고스란히 전수되어 있는
선가의 거울이라 할 만하다.
더욱이 바로보인 선가귀감은
해 소결마다 대한 문재현 선사의 사유어
핵심을 파헤쳐 적층시키듯
역대 조사와 서산대사의 의중을 꿰뚫어
보석처럼 빛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하세요
☎02-522-0122 www.zenparadise.com

龍見性成佛
福

복달마! 돈달마!

무엇이 잘 안 풀리십니까?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안겨주는 친필달마도
황금돈이 수없이 모아드는 행운과 영험을
외면 하시렵니까??
신중기도 100일 후 출시합니다. ₩300,000원

미타정사 성각 합장
02)389-5991, 2008

**황우석 박사 지지 불교연합
결성공지**

귀의삼보하옵고,

□ 우리민족이 낳은 세계적인 생명 과학자 황우석 박사는 2004년 5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중흥스님으로부터 제1회 불자대상을 수상한 독실한 불자입니다.

□ 황우석 박사는 불자로서 자비원력으로 불치병(장애 등)과 기타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을 세계 최초로 발명하였으나 뜻밖의 논문조작 논란에 휘말려 현재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 이에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익히는 불자들이 불심으로 황우석 박사를 지키고저, 공개모임으로 **황우석 박사 지지 불교연합(황불연)**을 2006년 4월 20일 결성하였습니다.

□ 본 연합은 한국불교 각 종단의 고승 대덕스님들 지도하에 전국불자 여러분과 더불어 앞으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황우석 박사의 연구개발과 특허수호를 위하여 정진하고자 하오니 제방의 스님들과 재가불자 제위의 관심과 지원과 적극적인 동참을 기원합니다.

사무처가모니불

**황우석 지지 불교연합(황불연)
창립회원 일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58 두산위브 빌딩 1212호 전화 : 02) 738-1231